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435-448  
<https://doi.org/10.29212/mh.2025..137.4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참관기] 6·25전쟁 이후 1950년대가 오늘날 한미군사 관계에 갖는 함의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1. 들어가며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1,129일 동안 지속되었던 6·25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6·25전쟁은 수백만의 인명 손실을 낳았고, 산업시설과 국가 기반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75년이 흘렀지만 6·25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으며, 군사분계선(DMZ)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2년의 세월이 흐른 현시점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K 방산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들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

력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것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이 존재했었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되었고, 「한미합의의사록」(1954.11.17.)은 국군의 뼈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50년대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와 군사의 토대를 세웠던 시기였으나 상대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6·25전쟁 이후 1950년대 한미군사 관계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던 주한미군역사실 관계자는 미 연방정부 섯다운(shut down)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부득이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는 군 관계자, 학계, 외교·안보 분야 연구를 수행 중인 학계 연구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1950년대가 한미군사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국방대학교 허남성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6·25전쟁 이후 한미군사 관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롤랜드 B. 윌슨(Roland B. Wilson) 교수가 “21세기 및 그 이후의 한미동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박사가 “1950년대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과 한국군 전력 증강”, (사)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신상수 이사가 “카투사 제도의 성립과 발전”을 각각 발표하였다. 제2세션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6·25전쟁 이후 한국의 국방 체제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육군군사연구소 김영환 박사가 “1950년대 한국의 국방체제 제도화”, 한국유엔사친선협회 장광현 박사가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사의 역할 변화”를 발표하였다.

제3세션은 성신여대 김용직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6·25전쟁 한국의 재건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숭실대 강성철 박사가 “6·25전쟁 이후 유엔의 한국 재건 정책”, 국민대 양준석 교수가 “1950년대 아시아반공연맹 결성 시도와 한미동맹”을 발표하였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발제자 및 토론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1950년대가 갖는 군사사적 의미와 한미동맹, 그리고 오늘날 국군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유엔 재건 정책의 의미,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카투사 제도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이러한 질문과 토론은 학술회의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세션별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군사사 측면에서 본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50년대

### 가. 6·25전쟁 이후 한미군사 관계의 발전

첫 번째 발제자인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박사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과 한국군 전력 증강” 발제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국군이 전력 증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최정준 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의 군사원조는 국군이 전쟁 이후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6·25전쟁 이전 미국은 한반도를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극적인 개입 정

책에서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군사원조(직접군원)를 받아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고, 군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은 정전 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한 원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타스카 사절단(The Tasca Mission)을 파견하여 한국 내 상황을 조사하였다. 타스카 보고서는 추가적인 원조가 없으면 현재의 군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개 사단으로 군대를 확장하는 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조정협정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계속 존속되어야 하며, 방위지원사업의 강조점은 원조, 질병 예방, 사회 안정 등의 문제에서 한국이 자체 방위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 재건, 발전을 위한 원조 제공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타스카 보고서를 수용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구호와 재건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유엔과 미국의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부여하였다.

정전협정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 특히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72만 명의 병력 규모와 미국의 군사원조 규모가 결정되었다. 1950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군사원조는 군원계획(MAP)에 따라 54억 7,000만 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1억 7,000만 달러였으며, 유상 군원은 대외군사판매(FMS) 50억 5,000만 달러, 사용 판매가 14억 3,000만 달러, FMS 차관은 23억 5,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에 따라 국군의 전력 증강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육군은 20개 사단 증강계획에 따라 사단 창설이 이루어졌고, 155mm 야전포병단, M36 전차중대 등이 창설되었다. 지휘체

계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2야전군사령부, 육군교육총감부를 창설하여 작전, 군수, 교육의 3개 기능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장비와 물자 보강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미국 군사교육 기관으로 군사유학도 지속 이루어져 매년 1,000여 명의 장교들이 코누스(CONUS) 프로그램에 따라 미 육군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다.

해군은 전후 해군력 증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함정을 인수하였다. 해군은 중형상륙함(LSM), 연안 소해함(MSC), 호위 초계함(PCE), 호위구축함(DE), 고속 수송함(APD) 등을 도입하였다. 해군은 195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총 43척의 함정을 도입하여 1960년에는 총 64척의 전투함정과 1만 6,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병대는 미국으로부터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 양용 장갑차(LVT)를 지원받아 LVT 대대의 전력을 보강하였다. 이 밖에도 해병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 장비, 공병 장비, 병기 장비를 지원받아 전투력을 증강하였다. 또한, 해병대는 미군과 연합상륙 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전담 부대로서 역량을 향상해 나갔다.

공군은 전후 전투기의 제트화에 주력하여 F-86F 전폭기, T-33 훈련기, C-46 수송기, FR-86F 정찰기, H-19 구조용 헬리콥터, LT-6G 전술항공통제기, F-86D 요격기 및 T-28A 연습기를 도입하였다. 1960년에 공군은 F-86D 21대, F-86F 135대 등 27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군의 전력 증강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 중반기에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군의 20개 사단 병력 유지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군이 추진되었다. 메이시(Robert M. Macy) 보고서는 한국의 과도한 군사력 운

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상호방위 지원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경제 조정관 원(William E. Warne)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서 한국군 감축을 권고하였다. 한미는 1957년 8월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감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논의를 토대로 육군 9만 3,000명, 해병대 1,500명을 감축하고, 해군 1,600명과 공군 3,3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의 규모는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최대 72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1959년 63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이처럼 1950년대는 국군이 전후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전력 증강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모습으로 성장하고 기틀을 다지는 토대가 된 시기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사) 대한민국 카투사 연합회 신상수 이사는 “1950년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카투사 제도”라는 발제를 통해 6·25전쟁 기간 중 카투사 제도가 창설된 계기와 1950년대 카투사 병력 추이, 6·25전쟁 기간중 카투사가 참전했던 전투 등을 밝혔다. 신상수 이사는 카투사 제도는 1950년 8월 15일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군 병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의 구두 합의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1950년 8월에 징집되어 부산 지역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카투사 병력은 미 제2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 미 제1기갑사단에 배속되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투입되었다. 또한, 일본 후지산 소재 미 제7사단 기지로 이동하여 훈련을 받은 후 카투사 병력은 미 제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카투사는 총 4만 3,000명이 참전하여 약 1만 1,000명이 희생되었으며, 전쟁 기간 중 카투사 병력은 약 1만 6,000명 선에서 유지되었

다. 카투사는 미군이 참전한 전투에서 함께 싸웠으며,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지평리 전투, 정전 협상 시기 중부전선의 고지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카투사는 미군과 전우 시스템(Battle Buddy System)의 일원, 피아식별(아군, 북한군, 중공군 구분), 적에 대한 정보 수집, 정찰 및 경계근무, 물자 운반 등을 수행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카투사는 한국의 서부전선 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례로 1959년 문산 소재 미 제1기갑사단 4기갑연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1개 중대에 카투사 병력이 60~70명으로 미군보다 카투사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카투사는 DMZ의 핵심 방어 축선인 서부전선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의 주요 공격 축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6·25전쟁에서 많은 수의 카투사 병력이 희생되었음에도 그동안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25일 카투사의 희생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카투사 전사자 7,052명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개최하였다. 호명식을 준비한 윌리엄 웨버(William E. Weber)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 이사장은 “카투사가 한국전쟁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군이 죽었을 것이며 카투사의 과거와 오늘, 앞으로의 역할이 한미동맹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카투사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2022년 7월 27일에는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는데,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 3,808명의 한미 장병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졌다. 미국 본토 추모의 벽에 외국군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카투사 사례가 처음이었다. 신상수 이사는 향후 시대별 주한미군

의 역할과 카투사 운용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굴하여 카투사가 한미동맹의 살아 있는 산 증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음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발제자인 롤랜드 B. 윌슨(Roland B. Wilson) 교수는 “21세기 및 그 이후의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한미군사동맹이 갖는 잠재력을 재평가한 후, 한미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 되돌아 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지역 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사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비록 어떤 분야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위협과 전략적 환경(북한, 중국, 회색지대, 사업 및 우주)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한미군사동맹 아키텍처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릴 수 없다”라는 말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조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있는 파트너십 구축과 주권, 비용 및 책임 분담의 균형 유지, 구조적, 교리적, 기술적인 개혁 등을 통해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으로 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의존, 한국군의 병력 감축(저출산 등),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중요성 인식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기회요인으로 장기간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 온 한미동맹의 잠재력(우수성),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로 안보 불안 해소, 한반도를 벗어난 세계 차원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한미동맹 재편성을 위한 과제로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 한국군 그리고 작전사령부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도 독일에 미군과 나토가 주둔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이버 및 미사일 방어 그리고 무인 시스템을 통합한 신속대응임무 수행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월슨 교수는 안보는 준비된 유능하고 잘 훈련된 장비를 갖춘 군사동맹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써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평가하였다.

제2세션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국방체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육군군사연구소 김영환 박사가 “1950년대 한국의 국방체계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영환 박사는 1950년대는 국군의 국방체계의 기본 구조가 확립된 결정적 시기였다고 보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국군은 기동장비, 화력, 지휘체계 및 교육훈련 수준에서 미비점을 드러냈고 중공군 참전 후에는 고지쟁탈전 중심의 소모전에 내몰렸으며, 현리전투 등에서 드러난 지휘 실패로 제3군단이 해체되었다고 보았다. 전쟁 기간 중 육군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 10개 사단으로 증강하였고, 1951년 전선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병력 소모가 증가하자 국군의 역할이 증가하여 20개 사단으로 확장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시에 육군은 총 18개 사단, 병력 약 55만 명으로 증강하였다. 휴전 이후 국군의 병력은 지속하여 증강하여 약 70만 명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사단 단위 전술훈련이 본격화되었고, 육군대학, 상무

대, 병과학교 등이 설립되어 장교단 체제가 정립되었다. 또한, 기존에 전혀 없던 전차부대가 창설되고, 기갑학교가 설립되면서 기동 전력 체계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차량 지원 확대는 산악 지형 중심 작전에서 수송 능력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군은 단순히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포병·기갑·공병이 통합된 제병협동 작전이 가능한 군대로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 국군의 증강은 전력구조, 장교단 전문화, 제병협동 개념 도입, 국방 제도의 제도화 등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 국가안보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유엔사친선협회 장광현 박사가 “유엔군사령부(UNC)의 역할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장광현 박사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NDS)에 부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 창설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갖춘 조직이며, 창설 당시 유엔사는 한국방위와 한반도 통일지원, 평시 정전협정 관리, 그리고 유사시 전력 제공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에 ‘한국방위’ 임무를 이양한 후 현재는 평시 정전협정 관리와 전시 전력 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사는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존재감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 공산 진영의 유엔사 해체 요구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의 유엔사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엔사의 약화를 원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안보적 가치와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 제공자 기능을 간과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자칫 유엔사의 위상과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

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유엔사의 역할에 관한 관심과 활용책 강구가 필요하다.

제3세션은 전후 한국의 재건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김용직 성신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숭실대학교 강성철 박사는 “6·25전쟁 이후 유엔의 한국 재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강성철 박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과 미국은 한국의 재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복구를 넘어 냉전기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원조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foreign aid)’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은 미국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상호안보법(MSA)을 근거로 양자 원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대규모 경제·군사원조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와 안보 체제를 구조적으로 장악하였다. 이 시기 원조 규모는 당시 한국 GNP의 80%를 상회하였으며, 전후 복구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안보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1957년 유엔군사령부(UNC) 본부의 서울 이전은 단순한 지휘체계 변경이 아니라 전후 한미동맹 내 유엔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재건을 통한 동맹 국가화(reconstruction to alliance state)’라는 독특한 안보·재건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반복되는 원조의 안보화 경향의 역사적 시초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은 ‘원조(개발)-안보 복합체(aid-security nexus)’의 대표적 사례로, 유엔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한국의 국가 형성(state building)과 동맹 정치의 기

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냉전기 동아시아 질서 형성의 핵심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다시 부각되는 원조의 안보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발제는 국민대학교 양준석 교수가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전개를 통해 본 미국의 딜레마와 이승만의 양가적 위협인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 발제는 이승만의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에 기초한 한국 주도 안보동맹체 구상 및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고, APACL 실패의 핵심 원인을 미국의 딜레마와 이승만의 양가적 위협인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NATO에 준하는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태평양양동맹(Pacific Pact) 구상을 추진했지만 실패하였다. 안보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1954년 APACL을 창설했다. 한국 정부는 APACL과 같은 지역 반공연맹 창설에 적극적이었고, SEATO 창설 시에도 한국을 포함하는 방위동맹을 원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의 한국 재외공관은 한국 주도의 아시아 방공연맹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무부는 일본을 포함하는 NEATO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SEATO에 한국을 제외했고, 특히 한국 주도의 아시아반공연맹을 고려하지 않았다. SEATO 참여 불가와 미국으로부터 다층적 한국 보호조치의 요청에 대한 실패는 한국으로서 APACL과 같은 한국 주도 안보공동체 구축을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도의 방위동맹 구축이 실패한 이유는 첫째, 미국에게 있어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확전의 위협을 가지고 있어 가장 통제해야 하지만, 동시에 냉전 대립의 최전선 국가로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딜레마적 국가였다. 미국에게 한국 주도의 반공기구체 시도는 미국의 한국 지원에 관한 기준점을 크게

벗어나는 불안 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위협인식이었다. 이승만의 반공과 동시에 견지했던 반일 인식은 APACL의 반공동맹으로 격상을 가로막았다. 제국주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이승만에게 공산 진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일본은 결코 연맹으로서 용납되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 반공 국가의 통합을 제약했다.

APACL은 실패한 지역방위동맹 구상이었음에도, 미국 중심의 동맹 질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 중심의 아시아 블록을 인지시킨, 약소국의 주체적 전략 외교 시도였다. 한미동맹 틀 내에서 약소국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지역 연대를 강화하고, 동맹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지렛대 전략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 3. 나오며

1950년대는 우리 민족사에서 암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진으로 표현하면 흑백사진으로 온통 잿빛 배경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이러한 황폐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국군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땀방울을 흘렸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6·25전쟁 이후 1950년대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실 1950년대는 군사사(국방사)에서 6·25전쟁과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렇다 보니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50년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군사사(국방사) 분야의 연구 주제들이 간과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번 학술회의는 기존 군사사(국방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1950년대 우리 군 관련 소주제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shut down)으로 당초 예정했던 주한미 군역사실 관계자의 참석이 어려워져 일부 계획을 조정했으나, 학술회의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발제자들은 각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가 부족했던 영역을 보완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잘못 알고 있는 분야, 간과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도 배경과 변천 과정 설명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학술회의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1950년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군에게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였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여 오늘날 국군의 토대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의 위상은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국군은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군의 성장 과정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더욱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50년대가 군사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